

AI·드론·로봇 등 538개사 발굴… ‘신안보 혁신기업’ 키운다

신안보 특별법 산자위 심사 대기
전략분야 투자 전문회사 설립 추진

중기부, 1차 기업 풀 구축 완료
AI 145곳·우주항공 115곳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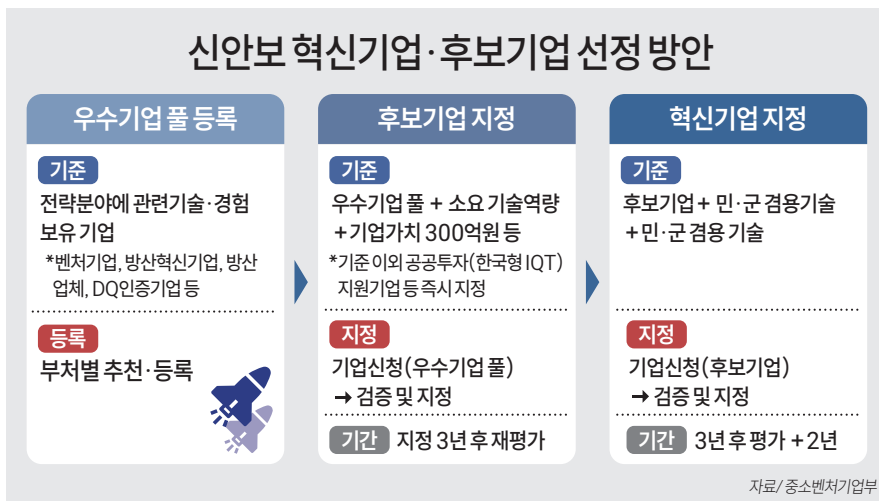
기술력·성장성 따져 육성기업 선정
R&D·투자·사업화 전주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안보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위한 준비를 서서히 마련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들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AI) 등 9개 분야에 대한 신안보 기업 풀(Pool) 구축도 끝냈다. 신안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성장 뒷받침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안은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신안



보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으로 발굴·육성하고, 연구개발·실증·투자·조달·수출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미국 인큐텔(In-Q-Tel) 모델을 참고해 정부가 신안보 전략 분야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그 화수 성과를 재투자하는 전략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의한 법안에는 ▲신안보 전략분야, 신안보 혁신기업·후보기업, 신

안보전략투자전문 회사 등 핵심 용어 정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 계획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신안보전략 투자전문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신안보 후보기업’으로 지정 ▲한국벤처투자자회사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설립 등의 내용을 두루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박용순 중소기업 정책실장 주재로 이날 서울에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25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신안보 분야 기업 풀(Pool) 구축 결과 ▲신안보 전략분야 선정계획 및 혁신기업 평가기준(안) 마련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형 기술개발(R&D) 지원 방안 ▲신안보 분야 펀드 조성 등 투자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중기부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벤처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1차 신안보 분야 기업 Pool 구축을 끝냈다.

총 538개사(중복 47개사 제외)로 추진 Pool 중에선 AI 분야가 145개사로 가장 많고 우주항공(115개사), 드론(68〃), 보안(65〃), 로봇(58〃) 등의 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 기업 풀(Pool)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성 및 성장성, 안보 기여도, 보안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선정·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신안보 전략분야로 현재 AI,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반도체, 우주항공, 드론, 신소재, 센서, 양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관련 분야 혁신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신안보 분야가 기술개발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초기 투자 부담도 큰 반면, 국가안보와 미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인 점을 감안해 R&D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박용순 실장은 “신안보 분야는 국가안보 역량 강화뿐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신안보 분야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발굴부터 연구개발과 투자·사업화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LS일렉트릭, 직류 기술로 전력망·AI시장 공략

BIXPO서 HVDC·직류 배전 기술 공개
전력망·AI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 추진

LS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전시회에서 송전부터 배전까지 아우르는 직류(DC) 기술을 선보이며 국가 전력망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에 나선다.

LS일렉트릭은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6’에 참가해 미래 전력망 핵심 기술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LS일렉트릭은 ‘지능형 전력망, AI 시대를 선도하다(Intelligent Grid, Powering the AI Era)’를 주제로 108㎡(12개 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한다. 주요 전시 품목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E-스태콤(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K-



LS일렉트릭 ‘빅스포 2026’ 부스 조감도. /LS일렉트릭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이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연계에 필요한 HVDC 기술을 집중 소개한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대규모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장거리로 보내는 기술로, 기존 교류 송전보다 장거리·대용량 전력 전송에 유리하다.

LS일렉트릭은 북방진·고덕 HVDC 변환설비 구축에 이어 동해안~수도권 HVD C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에 변환용 변압기(C-TR) 등 핵심 설비 공급을 추진해 국내 HVDC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공개한다. LS일렉트릭은 ‘AI 데이터센터 존’에서 기존 교류 기반 전력 공급 시스템부터 차세대 800V 직류 배전까지 전력 인프라의 발전 과정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도 선보인다. ‘E-스태콤 존’에서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도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공개한다.

‘스마트그리드 존’에서는 대형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인 K-EMS의 국산화 경험과 기술 신뢰성을 소개한다. LS일렉트릭은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K-우수제품 188개 선정·해외 판로 지원

중기부, 뷰티·패션 등 4개 분야 선정
올리브영·무신사 등 해외 진출 지원

한국을 대표할 우수제품 188개를 선정해 유망 대기업과 협업, 해외 진출을 적극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마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2026년 K-수출전략품목’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4년부터 중기부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소비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우수 제품을 선정해 K-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리브영 등 유망 대기업들과 협업으로 이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올해 K-수출전략품목에는 뷰티 70개, 패션 38개, 라이프 40개, 푸드 40개가 선정됐다. 앞서 983개 기업이 신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품 우수성 등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 188개 제품을 최종적으로 추렸다.

K-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올리브영(뷰티), 신세계백화점(뷰티·패션), 무신사(패션), G마켓(라이프), 롯데마트(푸드) 등 글로벌 유통기업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유통채널 입점, 온·오프라인 기획전, 현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수출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해외 전시회·상당회 참가 등 정부 수출 지원사업 우대와 함께 중기부가 주최하는 해외 한류 연계 행사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 선정 기업을 포함해 지금까지 K-수출전략품목으로 뽑힌 기업 간 협의체도 출범해 네트워킹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위아, 열관리·구동 기술 유럽서 선보

독일 IZB서 전동화 핵심 부품 공개

현대위아가 열관리 시스템과 차세대 구동 기술을 앞세워 유럽 완성차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위아는 27일(현지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 알레파라 전시장에서 개막한 국제자동차부품전시회 ‘IZB 2026’에 참가해 전동화 차량용 핵심 부품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폭스바겐이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36개국 858개 업체가 참여했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에서 열관리와 구동 분야의 선행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2035년까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까

지 감축한다는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전환에 대응해 에너지 효율과 부품 경량화, 패키징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에서 공조시스템 핵심 부품인 HVAC를 선보였다. 이 장치는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차량 안 상황에 맞는 최적 온도를 만들어 공급해 주는 부품이다. 현대위아는 HVAC보다 높이를 낮춰 공간 활용성과 전비 효율을 높인 슬림 HVAC도 선보였다. 또 배터리와 전력전자 시스템을 동시에 냉각할 수 있는 통합형 쿨링모듈도 선보였다. 현대위아는 기존에 따로 배치하던 두 개의 라디에이터를 하나로 통합해 부품의 두께와 무게를 줄였다.

/양성운 기자 ysw@

금호타이어 日 굿 디자인 어워드 수상 세계 4대 디자인상 석권

금호타이어가 사계절용 초고성능 타이어의 일본 디자인상 수상으로 올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했다. 금호타이어는 ‘엑스타 스포츠 A/S’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굿 디자인 어워드는 일본 디자인진흥원(JDP)이 1957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독일의 iF 레드닷,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독일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엑스타 스포츠 A/S는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한 사계절용 초고성능 타이어다.

/이승혁 기자 shlee@

세종창경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기술사업화·보증·투자 연계 추진

기술보증기금이 세종창조경제센터와 손잡고 지역 스타트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27일 세종시 세종창경센터에서 ‘세종 혁신스타트업 성장생태계 조성 및 금융지원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창경센터는 세종지역의 대표적인 창업지원기관으로, 창업기업 보육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창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협약에 따라 세종창경센터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술사업화와 실증지원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스타트업 보증과 투자 추천·홍보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기업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증·사업화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 박경순 충청지역본부장은 “세종시는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세종창경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